

사물인터넷에서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김해선*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in the IoT

Hae Su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Baekseok Culture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에서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충청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하였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의 관계에서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참여하기 전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기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진로정체감,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치위생과, 매개효과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in the IoT.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n 172 dental hygiene students in a university located in Chungcheong area. For data analysi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Baron & Kenny's three-step mediation analysis was use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howe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both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and self-esteem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areer identity.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were found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Thus, since self-estee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it's essential to implement online-based programs aimed at increasing self-esteem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before they participate in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Career identity,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elf-esteem, Dental hygiene, Mediating effect

*교신저자 : 김해선(haesun@bscu.ac.kr)

접수일 2024년 02월 23일 수정일 2024년 03월 04일 심사완료일 2024년 03월 22일

1. 서론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은 크게 이론적 지식과 지식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학문적 영역의 이론적 발전은 교수의 끊임없는 연구와 수업을 통해서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있으나 실습은 다양한 시설과 장비들이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으로 산업체의 발전 변화 속도에 맞는 첨단 설비를 따라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1]. 치위생과를 졸업 후 즉시 산업체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산업체 현장에 필요한 직무능력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의 개념은 사용하는 연구자마다 다양하다. 현장실습을 표현함에 있어 일 경험(work experience), 감시된 직업 경험(supervised occupational experiences), 일 중심 학습(work-based learning) 등 다양하지만 그 용어들 간의 의미 차이는 대동 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2]. 간호 및 보건계열에서는 현장실습[3], 임상실습[4]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치위생과 학생들은 졸업 후 주로 취업하게 되는 치과 의원 및 다양한 치과관련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임상실습은 이론적 지식을 임상현장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비판적 사고 함양과 함께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4-6]. 또한 임상실습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이 다시 학과 교과목 수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5]. 임상실습을 실시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직접 실천해 보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학생들은 더 많이 학습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치위생학과 교육과정에는 임상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치위생 교육과정에는 임상실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내 치위생학 관련 임상실습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조사 당시 총 83개의 치위생학과 중 교육과정이 불완전하거나 폐교한 3개 대학을 제외한 80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개인 병원/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였다[7]. 하지만, 학생들은 임상실습을 통해 지식, 기술 및 태도를 적용하는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지식을 실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현장의 상황과 실습내용과의 차이, 동료학생과의 관계 등의 이유로 두려움, 불안, 걱정 등 많은 정신 및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다[8,9]. 다양한 이유로 경험하게 되는 정신 및 정서적 문제들로 인해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 저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역할 수행에 있어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태도 및 직업에 대한 자신감 상실

로 이어질 수 있다[10,11].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학생들은 실습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모든 일들을 자신이 변화시킬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되고 지식 부족과 낯선 환경으로 인해 환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12,13]. 이러한 무력감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 초조해지고 수면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학습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4]. 간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중 느끼는 무력감은 임상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저하뿐만 아니라 간호에 대한 자신감 저하나 간호사를 가지 있는 직업으로 느끼지 못하고 간호직을 훌륭하게 해낼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5].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이 낮으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되는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직업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능력과 흥미를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에 가장 잘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 높은 진로정체감은 자신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도록 하고 이를 위해 준비 및 계획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돕는다[16]. 또한 진로목표를 이루기 위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하고 진로목표에 도달하도록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조절하도록 돕는다[17]. 임상실습 중 겪게 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진로정체감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곧 학업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열의에 영향을 주게 되고 학습태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선택한 진로수행에 필요한 노력을 개발하는 행동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18]. 취업 후에도 현장적응에 실패하는 등 조기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임상에서는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19].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20],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중 경험하게 되는 고립감과 우울과 같은 감정이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1]. 학생 때 올바르게 형성된 진로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치과위생사직에 대한 뚜렷하고 안정된 진로준비 행동을 하게 도와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도록 도울 것이다[18,22].

우울, 자살 생각 등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활

동과 경제활동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자아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다[23,24].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내적 보호자원이 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남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고 자신감을 저하시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기 어렵게 만든다[25]. 자아존중감이 낮은 치위생과 학생은 시험불안도가 높으며[24]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1,26]. 반면 높은 자아존중감은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해결하게 만들어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감소시키는 반면 진로정체감, 자아효능감, 전문적 역할수행능력 향상에 필요한 중요한 내적 보호자원으로 보고되고 있다[11].

이러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 온라인 기반의 프로그램 운영은 치위생과 학생들의 전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진로를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27]. 다른 학과와 다르게 간호 보건계열 학생들은 국가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과 과중한 학업 및 실습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인성교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겠다.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 무력감, 진로정체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 무력감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다[28].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직업정체감에 관한 연구[29]와 임상실습 중 치위생과 학생들이 경험한 언어폭력이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가 일부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정도를 확인 한 후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의 근거자료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 소재한 1개 대학에 재학중인 치위생과 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들에게 서면 동의와 함께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치과의원, 치과병원, 대학 및 종합병원 치과, 보건소 내 구강보건실에서 2학년은 여름 방학동안 그리고 3학년은 1학기 동안 현장실습을 모두 마친 자이다. 총 18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172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표본수는 G*Power program 3.1.9.7을 이용하여, 다중회귀 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80, 독립변수 2개일 때 최소 표본수가 68명이며, 일원배치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25, 검정력 .80일 때 최소 표본 수가 159명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한 것으로 나왔다.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었으며,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치위생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도록 한 후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현장실습관련 무력감

현장실습관련 무력감을 측정하기 위해 이경희[14]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이용하였다. 5점 척도의 27문항으로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아니다' 1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장실습관련 무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경희[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파악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이용하였다[30]. 총 10문항으로 역문항은 역환산하였다. 점수는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아니다' 1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신향과 백민재[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2.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권윤희와 김정남[31]이 간호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안하여 이용하였다. 총 14 문항으로 점수는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아니다' 2점, '전혀 아니다' 1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윤희와 김정남[31]의 선행연구에서 Cronbach's α 가 .88이었고, 본 연구는 .93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IBM SPSS 27.0 프로그램(IBM SPSS 27.0, SPSS Inc, IL, Chicago, USA)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을 기술통계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은 t-test와 one-way ANOVA를 시행한 후 변수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를 확인하기 위해 Scheffe multiple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의 선형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이용하였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존중감이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32]의 매개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과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확인(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확인(2단계),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3단계)하였다. Sobel test 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학년은 2학년 86명(50%), 3학년 86명(50%)으로 동일했고, 성적은 3.0~3.9가 115명(66.9%)로 가장 많았고, 2.9 이하 39명(22.7%), 4.0 이상 18명(10.5%) 이었으며,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42명(24.4%),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130명(75.6%)이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만족 104명(60.5%), 보통 59명(34.3%), 불만족 9명(5.2%)이었고, 학과 만족도는 만

족 107명(62.2%), 보통 58명(33.7%), 불만족 7명(4.1%) 순이었으며, 현장실습 만족도 역시 만족 108명(62.8%), 보통 38명(22.1%), 불만족 26명(15.1%)로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variables		N	%
Grade	Grade 2	86	50
	Grade 3	86	50
Academic score	≥4.0	18	10.5
	3.0-3.9	115	66.9
	≤2.9	39	22.6
Religion	Have	42	24.4
	Non	130	75.6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104	60.5
	Moderate	59	34.3
	unsatisfied	9	5.2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107	62.2
	Moderate	58	33.7
	unsatisfied	7	4.1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8	62.8
	Moderate	38	22.7
	unsatisfied	26	15.1

3.2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정도

대상자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각 $2.32 \pm .77$, $3.92 \pm .74$,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을 기준으로 $2.75 \pm .59$ 로 나타났다.

〈Table 2〉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Mean±SD	Min-Max	Range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2.32±.77	1.00-4.32	1-5
Self-esteem	3.92±.74	1.50-5.00	1-5
Career identity	2.75±.59	1.37-4.00	1-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대학생활 만족도($F=5.397$, $p=.005$), 전공 만족도($F=8.875$, $p=.000$),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F=25.426$, $p=.000$)에서 유의하였다.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불만족으로 응답

한 학생이 '만족'과 '보통'보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3).

자아존중감은 성적($F=3.583, p=.030$), 대학생활 만족도($F=14.645, p=.000$), 전공 만족도($F=11.029, p=.000$)에서 유의하였다. 성적이 2.9 이하보다 3.0-3.9와 4.0 이상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만족도와 전공만족도에서 '만족'으로 응답한 학생이 '불만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진로정체감은 성적($F=3.439, p=.034$), 대학생활 만족도($F=10.722, p=.000$), 전공 만족도($F=23.263, p=.000$), 그리고 임상실습 만족도($F=7.331, p=.001$)에서 유의하였다. 성적이 2.9 이하보다 3.0-3.9와 4.0 이상에서 진로정체감이 높았으며, 대학생활 만족이 보통, 불만족보다 진로정체감이 높았다. 전공 만족도 역시 만족이 불만족보다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Table 5).

<Table 3>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N(%)	Mean±SD
Grade	Grade 2	86(50)	2.26±.79
	Grade 3	86(50)	2.39±.76
t or F(ρ)			-1.115(.266)
Academic score	≥4.0	18(10.5)	2.22±.91
	3.0-3.9	115(66.9)	2.32±.77
	≤2.9	39(22.6)	2.39±.73
t or F(ρ)			.306(.737)
Religion	Have	42(24.4)	2.25±.81
	Non	130(75.6)	2.35±.77
t or F(ρ)			-.693(.489)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104(60.5)	2.17±.75 ^a
	Moderate	59(34.3)	2.54±.77 ^b
	unsatisfied	9(5.2)	2.64±.70 ^b
t or F(ρ)			5.397 ^{**} (.005)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107(62.2)	2.14±.73 ^a
	Moderate	58(33.7)	2.59±.77 ^{ab}
	unsatisfied	7(4.1)	2.88±.78 ^b
t or F(ρ)			8.875 ^{***} (.000)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8(62.8)	2.05±.674 ^a
	Moderate	38(22.7)	2.62±.68 ^b
	unsatisfied	26(15.1)	3.02±.73 ^c
t or F(ρ)			25.426 ^{***} (.000)

^a $p<0.05$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b,c}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0.05$

<Table 4> Self-estee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N(%)	Mean±SD
Grade	Grade 2	86(50)	3.97±.76
	Grade 3	86(50)	3.86±.72
t or F(ρ)			.940(.348)
Academic score	≥4.0	18(10.5)	4.17±.45 ^a
	3.0-3.9	115(66.9)	3.96±.72 ^a
	≤2.9	39(22.6)	3.67±.83 ^b
t or F(ρ)			3.583 [*] (.030)
Religion	Have	42(24.4)	4.08±.73
	Non	130(75.6)	3.86±.74
t or F(ρ)			1.678(.095)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104(60.5)	4.14±.66 ^a
	Moderate	59(34.3)	3.57±.72 ^b
	unsatisfied	9(5.2)	3.53±.80 ^b
t or F(ρ)			14.645 ^{***} (.000)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107(62.2)	4.10±.63 ^a
	Moderate	58(33.7)	3.64±.79 ^{ab}
	unsatisfied	7(4.1)	3.30±.83 ^b
t or F(ρ)			11.029 ^{***} (.000)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8(62.8)	4.01±.75
	Moderate	38(22.7)	3.74±.70
	unsatisfied	26(15.1)	3.80±.72
t or F(ρ)			2.288(.105)

^a $p<0.05$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0.05$

<Table 5>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areer identity	
		N(%)	Mean±SD
Grade	Grade 2	86(50)	2.81±.63
	Grade 3	86(50)	2.68±.54
t or F(ρ)			1.382(.160)
Academic score	≥4.0	18(10.5)	2.83±.46 ^a
	3.0-3.9	115(66.9)	2.80±.58 ^a
	≤2.9	39(22.6)	2.53±.61 ^b
t or F(ρ)			3.439 [*] (.034)
Religion	Have	42(24.4)	2.89±.60
	Non	130(75.6)	2.70±.58
t or F(ρ)			1.900(.059)
Satisfaction Level with college life	Satisfied	104(60.5)	2.90±.59 ^a
	Moderate	59(34.3)	2.51±.49 ^{ab}
	unsatisfied	9(5.2)	2.45±.51 ^b
t or F(ρ)			10.722 ^{***} (.000)
Satisfaction Level with major	Satisfied	107(62.2)	2.95±.56 ^a
	Moderate	58(33.7)	2.46±.46 ^b
	unsatisfied	7(4.1)	2.02±.38 ^c
t or F(ρ)			23.263 ^{***} (.000)
Satisfaction Level with clinical practice	Satisfied	108(62.8)	2.87±.60 ^a
	Moderate	38(22.7)	2.61±.56 ^{ab}
	unsatisfied	26(15.1)	2.44±.40 ^b
t or F(ρ)			7.331 ^{**} (.001)

^a $p<0.05$ by the independent t-test or one-way ANOVA
^{a,b} The same character indicat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effe test at $\alpha=0.05$

3.4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간의 관계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정체감의 상관관계는 <Table 6>와 같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자아존중감($r=-.395, p<.01$)과 진로정체감($r=-.648, p<.01$)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r=.499, p<.01$)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6> Correlation of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self-esteem	career identity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1		
self-esteem	-.395**	1	
career identity	-.648**	.499**	1

** $p<.01$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3.5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성을 분석하여 회귀모형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공차한계는 0.844,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00 ~ 1.185로 나타나 10미만이므로, 독립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또한 Durbin-Watson 지수는 1.950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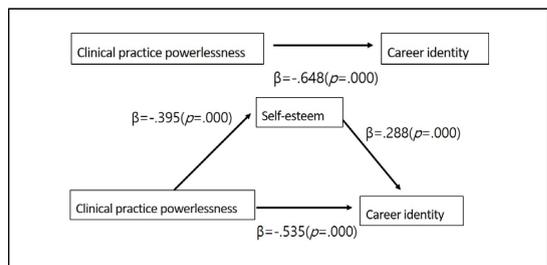
1단계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395, p=.000$), 설명력은 15.0%였다. 2단계 회귀분석 결과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648, p=.000$), 설명력은 41.7%였다. 3단계 회귀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beta=.288, p=.000$), 설명력은 48.5%였다. 즉, 3단계에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인 β 값이 $-.535(p=.000)$ 로서 2단계에서의 β 값인 $-.648(p=.000)$ 보다 감소되어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able 7>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1. cpp† → self-esteem	2. cpp† → career identity	3. cpp†, self-esteem → career identity	
B	-.376	-.490	-.404	.229
SE	.067	.044	.045	.047
β	-.395	-.648	-.535	.288
t	-5.604***	-11.106***	-8.946***	4.825***
F	31.079***	123.333***	81.389***	
R2 (Ad R2)	.155(.150)	.420(.417)	.491(.485)	

*** $p<.001$,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g. 1]은 <Table 7>의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ta=-.648, p=.000$). 하지만, 자아존중감이 개입되면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beta=-.535, p=.000$). 이러한 결과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으로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 현상을 부분적으로 감소시켰음을 보여준다.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 계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3.679, p=.000$)(Table 8).



[Fig. 1]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career identity

<Table 8>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A course of variable	Z	P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 self-esteem → career identity	-3.679***	.000

*** $p<.001$

4. 고찰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임상실습 기관의 낮은 환경과 직원들 사이에서 학생들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 정도를 파악하고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5점 만점에 2.32점이었다.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의 무력감을 측정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제남주와 김정숙[33]의 연구결과 2.58점, 오윤경과 김은영[15]의 연구에서는 2.96점, 이경희[14]의 연구에서 2.57점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은 주로 대형병원 위주로 실습을 나가고 실습 진로 과가 방대하기 때문에 실습영역이 치과로 한정되어 있는 치위생과 학생들에 비해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대학생활 만족도, 전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은 경우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15]. 대학생활에 만족도가 높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태도가 높기 때문에 실습지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어져 무력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실습지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은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지만, 실습지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에 제한을 느끼는 등의 부정적 경험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자신감 결여나 실습지 상황에 대한 통제력 결여를 발생시켜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이 임상실습 중 무력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을 분석하여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겠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적 특성이나 대인관계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습지를 배치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진로정체감은 4점 만점에 2.75점이며 최정희[29]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직업정체감 정도는 2.30점이었고, 신보람 등[26]의 치위생전공 대학생의 진로정체감과 자아존중감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직업

정체감 정도는 2.49점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전공 만족도가 높은 경우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신향과 백민자[3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입학부터 직업이 치과위생사로 정해져 있는 과의 특성상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입학함으로써 전공에 대한 흥미가 높아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일어나 우수한 성적을 얻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아져 직업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29]. 특히 최정희[29]의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치위생과를 선택한 학생은 직업정체감이 높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과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많거나 장래희망이 보건의료인력으로 거의 변화가 없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합격시키는 등 신입생 선발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3.92점으로 최정희[29]의 연구 3.47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적이 좋을수록, 대학생활과 전공에 만족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활기나 긍정적 성격으로 전환하는데 영향을 주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34].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은 전공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향상시켜 전공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시킨다[35]. 결국 높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36].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성실과 박미정[10]의 연구,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한 최정희[29], 이명주 등[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홍성실과 박미정[10]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무력감이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낮춘다고 발표하였고 최정희[29]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정도가 높은 경우 직업정체감이 낮게 나타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임상실습 중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로부터 경험하는 언어폭력은 치위생과 학생의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우울 수준이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진로정체감 수준이 낮아진다[11].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치과위생사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이 필요하다[37]. 하지만 임상실습 전보다 후에 치과위생사 이미지는 더 부정적으로 되었으며[38]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력감은 간호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만족도와 전공만족도 역시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따라서 임상실습 무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임상실습교육환경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역동적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임상실습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39]. 자아존중감은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보람 등[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신보람 등[26]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나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치위생전공 대학생들의 진로결정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확신과 믿음 그리고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잘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명확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자아존중감 매개를 통해서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치위생과 학생들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이 높으면 진로정체감이 낮아지는데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진로정체감을 높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가족, 친구, 교사 등으로부터 직접 혹은 온라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경우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39]. 또한 MBTI를 분석한 후 분석 결과에 따른 성장프로그램 제공은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진로정체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31]. 따라서 가족, 교수, 친구, 선후배 등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 중 느끼는 무력감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치위생과는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과목만 20개 교과목이 넘고 전공직무와 관련된 교과목 및 교내 실습과 교외 실습으로 인해 학업량이 과중하고 국가고시 준비를 위한

모의고사 및 수시고사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정규 교육과정에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과 같은 인성 교과목을 추가하여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코칭 프로그램 등을 온라인을 통해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면 치위생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과정 중 느끼는 무력감이 낮아지고 바람직한 치과위생사 이미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온라인을 기반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앞으로 치위생과 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임상실습교육과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의 근거 자료로서 의미를 가지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일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후 대상자를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 개 대학에 재학 중인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임상실습관련 무력감은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자아존중감과 진로정체감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부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관련 무력감과 진로정체감 간에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치위생과 학생들에게 임상실습에 참여하기 전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상실습 무력감이라는 심리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선후배 멘토

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거나 온라인 관계망을 통한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J.H.Ghang, Y.S.Kim and H.J.Jung, The Strategie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Work-based Experience. Seoul: KRIVET, 1998.
- [2] Y.J.Chun,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Student Field Practice of Employed Worker." JKAIS, Vol.7, No.2, pp.257-263,2006.
- [3] M.G.Seong, S.H.Hwang, H.K.Kang and K.A.Jang, "Influenc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Field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Vol.16, No.3, pp.391-399,2016.
- [4] I.S.Kim, Y.K.Jang, S.H.Park and S.H.So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c, Vol.17, No.3, pp.339-347,2011.
- [5] Y.S.Kim,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Regarding Achievement of Clinical Practice in Dental Hygiene."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Vol.13, No.1, pp.147-160,2000.
- [6] Y.A.Lee and Y.S.Kim,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nd the Performance Confidence." J Dent Hyg Sci, Vol.8, No.4, pp.353-359,2008.
- [7] B.Y.Won, G.W.Jang, M.Y.Hwang, S.A.Kim, S.W.Oh, J.H.Jang and K.H.Lee, "Current Conditions of Dental Hygiene Clinical Training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J Korean Soc Dent Hyg, Vol.19, No.1, pp.19-31,2019.
- [8] J.H.Lee and E.S.Jeon, "A Study on C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 Sci, Vol.9, No.1, pp.137-143,2009.
- [9] S.R.Lim and J.A.Yang, "A Systematic Review on the Stress of Clinical Dental Practic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CIT, Vol.11, No.9, pp.191-200,2021.
- [10] S.S.Hong and M.J.Park,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Helplessness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 of KoCon.a, Vol.14, No.12, pp.369-377,2014.
- [11] S.H.Lee and E.J.Cha, "Effects of Verbal Abuse, Sexual Violence, Depression, and Self-Estee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Training." Jour. of KoCon.a, Vol.17, No.4, pp.550-560,2017.
- [12] H.K.Yoon, "A Study on Nursing students' Learned Helplessness and Helplessness behavior." J Korean Public Health Nurs, Vo.29, No.2, pp.244-256,2015.
- [13] K.O.Park and J.K.Kim, "Experience of Incivility to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KANA, Vol.23, No.5, pp.524-434,2017.
- [14] K.H.Lee, "Mediation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 Powerlessness and Nursing Image." J. East-West Nurs. Res., Vol.16, No.1, pp.26-34,2010.
- [15] Y.K.Oh and E.Y.Kim, "The Effects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Nursing Students' Powerlessness and Self-Efficacy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J. East-West Nurs. Res., Vol.24, No.1, pp.36-43,2018.
- [16] I.S.Park and Y.J.Han, "A Study on the Difference in Career Attitude Maturity, Career Identity, Stress Management, and Satisfaction for Major Classes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EC, Vol.7, No.1, pp.145-167,2017.
- [17] I.S.Kim, M.J.Son and H.G.Park, "The Effects of Dysfunction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Job-Seeking Anxiety." JKAIS, Vol.18, No.2, pp.302-312,2017.
- [18] Y.J.Ko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CCT, Vol.9, No.1, pp.485-492,2023.
- [19] E.J.Jo, J.H.Park and G.M.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329-227,2019.
- [20] M.J.Lee, H.J.Lee, Y.S.Cheon, S.J.Kwon and S.H.Kwon, "The Effect of Verbal Violence Experienced by Dental Hygiene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on their Self-esteem and Career Identity." J Kor Dent Hyg Sci, Vol.4, No.2, pp.19-30,2021.
- [21] J.H.Cho and O.H.Cho, "The Effect of Isolation, Depression, Resilience of Nursing Students on Career Ident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9, pp.435-444,2021.
- [22] S.S.Bae, S.J.Mun and H.J.Noh, "Influencing Factors up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8, pp.439-447,2014.
- [23] C.M.Yoo, "A Decade of Changes in Two Dimensional Self Esteem: A Life Course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8, No.3, pp.7-44,2018.
- [24] H.J.Choi and S.K.Jun, "Impact of Self-Esteem and Test Anxiety on Mental Health in students of Dental Hygienics." JKSSCHE, Vol.13, No.1, pp.77-87,2012.
- [25] S.Y.Kim, S.Y.Lim and H.M.Choi,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CCT, Vol.1, No.4, pp.59-64,2015.
- [26] B.R.Shin, S.S.Bae, J.H.Jang and S.H.Kim,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Careers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Vol.1, No.1, pp.13-22,2013.
- [27] Y.M.Jeoun, "The Effects of the Online-Based Problem

Solving Program on Adult Learners' Self-esteem and Meta-cognition." J.E.B.D, Vol.38, No.4, pp.317-336,2022.

- [28] H.J.Youn, J.O.Jeong and K.H.Lee,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J Korean Soc Dent Hyg, Vol.12, No.4, pp.781-792,2012.
- [29] J.H.Choi, "Convergence Factor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esteem on Professional Identity in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5, pp.99-104,2018.
- [30] S.H.Kim and M.J.Baek,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of Test Anxiety and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SW, Vol.4, No.3, pp.327-346,2019.
- [31] Y.H.Kwon and C.N.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Vol.13, No.2, pp.216-229,2002.
- [32] R.M.Baron and D.A.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 Pers Soc Psychol, Vol.51, No.6, pp.1173-1182,1986.
- [33] N.J.Je and J.S.Kim, "The Influence of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Field Practice Adapt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ing Efficacy in Convergence Er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2, pp.469-479,2020.
- [34] S.Eom, Y.J.Choi and J.O.Choi, "Influence of 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in Dental Hygiene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J Korean Soc Dent Hyg, Vol.16, No.6, pp.1115-1124,2016.
- [35] J.Y.Kim,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Occupational Self- Efficacy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 pp.269-276,2018.
- [36] K.H.Park and H.J.Choi,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Soc Dent Hyg, Vol.15, No.2, pp.279-286,2015.
- [37] Y.K.Han and H.H.Kim,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Image of Dental Hygienists in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Vol.15, No.4, pp.457-464,2015.
- [38] H.J.Youn, J.O.Jung and K.H.Lee, "Dental hygienist imag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J Korean Soc Dent Hyg, Vol.12, No.4, pp.781-792,2012.
- [39] O.Y.Wi and J.H.Le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Practice Powerlessness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KALCI, Vol.22, No.1, pp.341-353,2022.

김 해 선(Hae Sun Kim)

[정회원]



- 2006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예방치과학석사)
- 2009년 2월 :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예방치과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문화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관심분야>

치위생학, 예방치과학, 온라인 교육